

碩 士 學 位 論 文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 제주도를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家政教育專攻

宋 慶 姬

2004年 8月

碩 士 學 位 論 文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 제주도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惠 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家政教育專攻

宋 慶 姬

2004年 8月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 제주도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惠 淑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家政教育專攻

提出者 宋 慶 姬

宋慶姬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4年 8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인)

審 查 委 員 _____ (인)

審 查 委 員 _____ (인)

<국문초록>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 제주도를 중심으로 -

송 경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혜 숙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가족도 항상 변해가고 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정불화와 가정교육의 부재, 결손가정의 증가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의 모습들은 현대가정들이 안고 있는 문제로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 연구는 미래의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할 청소년기의 중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한 지침과 바른 가치관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족의 건강성은 어떠한지, 청소년들의 가족의식 변화를 살펴보고, 과연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식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는 제주도 관내 중학교 남·녀 학생 96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AS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한 뒤 t-test, 일원변량분석 및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에 의해서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학생 가족의 건강성은 평균 3.26점으로 비교적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건강성 4가지 하위요인 중 가족원간의 유대감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 가족원들끼리의 유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반면에 가족원들끼리의 가치체계 공유는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의 건강성 지각 정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집단이 그 외 고졸 이하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무직일 경우에 건강성 지각 정도가 제일 낮았다.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가족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혈연공동체라는 의미보다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부모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는데, 남학생들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부모 역할관으로 아버지의 역할로는 ‘같이 꾸러가는 가정을 만든다’, ‘경제적 책임을 진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의 순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역할로는 ‘같이 꾸러가는 가정을 만든다’, ‘가정의 가사 일을 담당한다’, ‘자녀와 함께 놀아주며 자녀교육을 담당한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의 부양 및 효 의식은 평균 3.82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저학년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부모를 모시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 지각하고 있고,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 및 장인·장모를 모실 의향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부양의 책임은 아들·딸 모두에게 있으며, 부양방법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도움 이외에 정서적인 부양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역할관에 있어서는 남녀평등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남성도 가사일 및 자녀양육을 담당해야 하며, 남녀의 능력 차이가 없고 직장 내에서 남성에게만 책임 있는 일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이 다소 전통적인 성 역할관을 나타냈다. 자녀의 필요성을 묻는 물음에는 아들·딸 구별 없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반드시 아들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았다. 또한 부모의 미래를 위한 투자재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애정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결혼도 필요하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이혼에 대한 의식은 개방적이지 않은데, 자녀관과 결혼관 모두 남학생들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식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부모에 대한 만족도와 부양 및 효 의식은 가족원간의 유대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잘될수록, 가족원간의 가치체계의 공유가 높을수록,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 역할관, 자녀관 및 결혼관은 가족의 건강성 요인과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가족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크고 부모 부양 및 ‘효’ 역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건강한 가족은 자녀도 있어야 하지만, 아들·딸 구별 없이 동등하며 특별히 남아만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의 필요성도 인식하나 이혼에 대한 의식은 낮게 나타났으며 부부간의 평등한 상호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 형성이 화목하고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 본 논문은 200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가족의 건강성	3
1) 건강한 가족의 개념	3
2) 건강한 가족의 특성	6
2. 가족의식	7
1) 부모 역할관	8
2) 부양 및 효 의식	9
3) 성 역할관	11
4) 자녀 관	12
5) 결혼 관	13
III. 연구방법	15
1. 연구문제	15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5
3. 조사도구	16
4. 자료 분석	19
IV. 연구결과 및 해석	20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20
2.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22
3.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의 건강성	23

4.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의식의 전반적인 경향	26
5.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의식	35
6.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식과의 관계	42
V. 결론 및 제언	44
1. 요약 및 결론	44
2. 제 언	47
참고문헌	48
Abstract	52
<부록 1>	55
<부록 2>	62



표 목 차

<표Ⅲ-1> 척도의 신뢰도	16
<표Ⅲ-2> 조사도구의 영역과 내용	18
<표Ⅳ-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21
<표Ⅳ-2> 가족의 건강성 정도	22
<표Ⅳ-3>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의 건강성	24
<표Ⅳ-4> 중학생이 인식하는 가족 의식관	27
<표Ⅳ-5> ‘가족’의 의미와 가정생활의 기대사항	28
<표Ⅳ-6> 부모 역할관	30
<표Ⅳ-7> 부양 및 효 의식	31
<표Ⅳ-8> 성 역할관	32
<표Ⅳ-9> 자녀관과 결혼관	33
<표Ⅳ-10>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부모에 대한 만족도	36
<표Ⅳ-11>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양 및 효 의식	37
<표Ⅳ-12>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 역할관	39
<표Ⅳ-13>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녀관	40
<표Ⅳ-14>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관	41
<표Ⅳ-15>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식의 상관관계	42

부 표 목 차

<부표 1> 가족의 건강성 세부분항	62
---------------------------	----

I. 서 론

가정은 인류 최초의 기관이며 기본적인 단위로서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장이다. 가족을 통해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미래를 창조할 일꾼을 길러내고, 사회생활에서 고갈된 에너지를 충전한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가족에 대한 믿음이 도전을 받고 있어 가족해체와 공동체 위기까지 야기 시키고 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정불화와 이혼율, 가정교육의 부재, 결손가정의 증가, 아동학대, 부부폭력의 증가, 청소년 비행과 가정범죄, 노인 문제, 가족의 병리적 현상, 가족 이기주의, 가족 공동체의 결속력 약화와 비인간화, 가족간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공허하고 텅 빈 가족해체 현상의 모습들은 현대가정들이 엄청난 혼란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가족도 항상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화에 민감한 가족체계가 사회현상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변화를 기존의 질서와는 다르다는 위기적인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변화의 실제 내용과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데올로기적 전통가치관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결국 사회변화에 맞추어 어떻게 대응적인 변화를 잘 이루어내고 있는가가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체계의 내적인 상호 역동성은 정서적 표현의 양과 질을 통제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가족가치관 형성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자녀가 어떻게 가정환경 내에서 기능하며 가족행동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과, 가족이 어떻게 청소년기 자녀에게 기능하며 영향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가정환경과 가족체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¹⁾

최근 가족학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건강 가족의 관점은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오늘날의 개인과 가족 그리

1) 윤세은(2000),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서울시 남녀고등학교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p.2

고 사회는 개방체계로서 어느 한 측면의 강화만으로는 전체 체계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다. 즉, 건강한 가족체계는 개별 가족성원의 가치관 및 노력 여하, 그 가족이 속한 확대 친족체계나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가족원 개개인을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가족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²⁾

한편,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 속에 오늘날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의식과 근대적인 가족의식의 공존상태에서 가치관 혼재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문제의 증가는 건강한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가족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아울러 미래에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갈 청소년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에 형성된 가치관과 태도가 미래의 가정생활 및 목표 설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무엇이며, 부모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 가정생활에 바라는 점 등의 가족의식 및 가족의 건강성에 대해 살펴보고, 가족의식과 가족 건강성과의 관계를 파악해 봄으로써 건강한 가족 형성을 위한 지침과 바른 가치관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윤세은(2000), 상계논문, p.2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의 건강성

‘건강한 가족’은 최근 가족 연구에 있어서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개념으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개인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가족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아래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건강가족의 개념 및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건강가족이 어떤 가족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건강한 가족의 개념

‘건강(health)’이란 사전적으로는 “몸에 병이 없고 튼튼하며, 도덕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의미한다(Webster사전, 1957).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신체적, 정신적 행복의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체적 건강’이란 불편함이나 무력감 없이 적당하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정신적 건강’은 생활에 대하여 행복하고 희망적이며 정력적인 감정을 갖는 것으로 불안감, 신체적 이상증세 등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가족원 개개인을 건강하게 육성시키고,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가족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오토(Otto), 스티넛(Stinnett), 큐란(Curan) 등에 의해 실시된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들은 가족의 실패보다는 가족의 성공에 초점을 두면서, 가족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³⁾

3) 유영주 외6인(2000), 「현대결혼과 가족」, 신광출판사, PP.33~34.

건강가족은 학자들에 따라 Healty Family, Strong Family, Functional Family, Optimal Family, Normal Family, Balanced Family 등 다양한 용어로 연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건전가정, 건강가정, 건강가족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⁴⁾

(1) 기능적인 가족 (Functional Family)

기능적인 가족(Functional Family)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대표적인 학자 Bloom(1985)에 의하면 기능적인 가족이란 가족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외부상황을 통제, 조정할 수 있으며, 가족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가족의 사회성을 고무하는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⁵⁾

(2) 강한 가족(Strong Family)

Otto⁶⁾(1962)가 1960년대에 제시한 바 있는 개념으로 그는 가족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가족의 강점(strengths)을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사전상의 의미로는, 가족의 강점(strengths)이란 가족 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소들의 궁극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요소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전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그 능력과 강도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강점에 대한 추론에 더하여 Otto⁷⁾는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는 가족의 강점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건강한 가족의 강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1975). 즉, 그에 의하면, 건강한 가족의 강점이란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가족원간에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며, 가족의 개인적 잠재력을 북돋우는 사회 심리적 특성이며 관계유형이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강한 가족’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 대부분은 가족원간의 사회

4) 어은주(1996), “한국 도시 가족의 건강성 및 관계 요인 연구 -자녀 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p.6.

5) 상계논문, pp.6~7, 재인용.

6) H. A. Otto(1962). What is a strong family ?.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pp.77~80.

7) *Ibid*, pp.77~80.

심리적 관계특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시적인 가족관계로 접근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있는 현 시대의 조류와 역행하는 정의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3) 균형된 가족(Balanced Family)

균형된((blanced) 가족은 체계요소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체계의 전체성을 이루고 체계의 평형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family process)에 초점을 둔 것으로⁸⁾, 가족의 적응력, 응집력, 기능수행이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 있는 상태일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가족 기능 수행이 이루어지며, 가족과 가족원간의 발달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4) 건강한 가족(Healty Family)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건강한(healthy) 가족의 개념은 대부분 병리적인 가족을 연구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으로, 가족 내의 사회·심리적 요인 외에 가족 내의 권위, 갈등, 그리고 부모의 동맹 등의 요인이 강조되었지만 Otto⁹⁾는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했다. 또한, 건강한 가족의 특성으로 가족의 의사소통 및 인정, 존경, 신뢰 등의 사회 심리적 특성을 들고 있다.

즉, 가족원간의 사랑·행복·개별성 존중 등 가족원간의 정서적인·유대적인 특성, 가족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 가족가치관의 공유, 의사소통 등을 도모하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국내에서도 최근 건강한 가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건강한 가족을 개인적 차원에서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관계 차원에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며, 가족체계가 잘 유지되면서 가족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가족으로 정의함으로써 가족체계 내에서의 개인

8) 어은주(1996), 전계논문, pp.8~10.

9) H. A. Otto(1962), *op. cit.*, pp.77~81

10) 유영주의 6인(2000), “현대결혼과 가족”, 신광출판사, pp.31~36.

및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였다.¹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한 가족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원 상호간의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의 공동체적, 정서적, 도덕(가치)적 관계향상을 도모하는 가족이다.¹²⁾

2) 건강한 가족의 특성

어은주와 유영주(1995)¹³⁾가 한국가족이 인지하는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가족학 전공자와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① 대화(양, 질, 분위기)가 잘 이루어지는 가족
- ② 가정생활이 화목한 가족
- ③ 서로 사랑하며 가정 내에 사랑이 충만한 가족
- ④ 부모나 웃어른을 공경하는 가족
- ⑤ 함께 많은 시간(여가, 식사 등)을 보내며 그것을 즐기는 가족
- ⑥ 가족 공통의 가치관과 가훈이 있는 가족
- ⑦ 상호이해가 이루어지는 가족
- ⑧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가족
- ⑨ 가족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가족
- ⑩ 건전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가족
- ⑪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가족
- ⑫ 문제를 잘 해결하는 가족

위의 조사결과, 한국 도시 가족이 인지하는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족원간의 유대와 결속을 도모하며, 분명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

11) 상계서, pp.36~38.

12) 유영주·어은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p.147

13) 상계논문. pp.145~156.

누며, 가족문제나 위기를 잘 해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가족 공통의 가치관과 규칙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건강가족의 특성을 집약하여 한국의 건강가족의 특성을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라는 4가지의 하위요인으로 나뉘 볼 수 있다.¹⁴⁾

즉, 건강한 가족원들은 유대가 강하며, 가족 활동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된다. 또한 명확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위기나 문제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뿐 아니라 그들은 목표를 공유하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공유한다. 가족의 행복에 늘 신경을 쓰며, 가족의 일원임에 늘 긍지를 갖는 특성을 보인다.

2. 가족의식



가족가치관이란 개인이 가족과 관련된 삶의 방식을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주체적인 원리로 작용하는 지속적인 신념체계로서,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가풍, 가훈과도 연결되며 사회변화에 영향을 받고 미래의 생활철학과 관련되어 가족을 통합하며, 가족원의 의식 등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가 자신의 가족을 설립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형성해 주는 개념이다.¹⁵⁾

인간을 둘러싼 가정환경 중 일차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족이라고 볼 때,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여러 가치관 영역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 한국의 가족은 형태 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치의식의 면에 있어서도 신구 전환의 과도기적 단계에 처해 있어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여러

14) 상계논문, p.156

15) 강숙경(1992), “가정의 심리적 과정 환경과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p.10.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가정교육의 부재나 부모 영향력의 약화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가족의 중요성이나 가족원간 상호작용에 관련된 가족 가치관의 파악이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족가치관 정립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¹⁶⁾

현재 다양한 가족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중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가족의 의미는 무엇이며 부모에 대한 만족도와 현 가정에 바라는 기대사항들을 알아보고 미래에 영위해 나갈 가정생활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부모 역할관, 결혼관, 성 역할관, 부모 부양 및 효 의식, 자녀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모 역할관

현대사회는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역할에는 어머니-아내 역할과, 아버지-남편 역할과 같은 성역할과 관련된 용어로 묘사된다. 어머니-아내 역할은 표현적·정서적 특징을 갖는데, 이것은 가족원 상호간의 애정과 정서적 지지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아버지-남편 역할은 수단적·도구적 특징을 지니며, 이것은 과업 수행과 통제 그리고 문제해결의 역할을 뜻한다.

즉 전통적으로 어머니는 가족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가족원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며, 가족원간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아버지는 가족원에게 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훈련하는 역할, 최종의 판단자이며, 벌을 주는 역할 등을 담당해 왔다.¹⁷⁾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자녀양육을 부부가 함께 공유하자는 경향이 커져가고 있고 아버지에게는 도구적·수단적 역할에 덧붙여 표현적·애정적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고 어머니 또한 도구적·표현적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6) 김경신(199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가치관과 세대간 유사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pp.43~65.

17) 이정우·김명자·계선자(2001), 「현대결혼과 가족문화」,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p. 198.

최근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서 일차적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실제로 상호작용이나 애착의 질적인 측면은 어머니보다 낮은 편이다.

그리고 취업모의 증가로 인해 가족의 경제적인 부양을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한 경우에도 자녀양육과 사회화의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모의 전통적인 역할 구분이 없어지는데도 ‘가족을 위하여 아버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며 경제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느끼고 있었고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는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교육 한다’는 내용의 응답이 많았었다.¹⁸⁾

이에 아버지의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가정 및 자녀의 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아버지의 위치를 찾아야만 하며, 자녀의 양육과 사회화 및 가족의 정서적 욕구 충족에 대한 절대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자기실현의 역할을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 및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의 재평가와 더불어, 어린이 양육을 대행하고 보조해주는 국가적인 뒷받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부양 및 효 의식

전통사회에서는 자식이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써 부모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 왔으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우리의 생애 중 노년기의 기간이 점차 크게 연장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부모 부양문제는 현대가족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되었다.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적 부양으로 나뉘 볼 수 있다.

경제적 부양이란 노부모가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며, 정서적 부양이란 노부모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외로움과

18) 김연근(1998), “중·고등학생의 가족 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p.37~38.

고독, 불안을 달래주는 인격적, 정서적 욕구의 충족을 제공하는 부양이다.¹⁹⁾

서비스적 부양이란 노인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취사, 목욕, 세수 등의 보살핌과 시중을 제공하는 부양을 의미한다.²⁰⁾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전반적인 노인 부양 형태가 변화되면서 효에 대한 의식도 달라져가고 있는데 노부모부양은 공적·제도적 차원의 부양과 함께, 가족이 애정·관심의 정서적 부양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현대적 효와 관련된 노부모부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수명의 연장으로 노부모 부양이 보편화 되고 있지만 공적 부양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90%이상이 가족이 담당하고 있으며 한 연구에 의하면 부양자가 며느리인 경우는 75%, 아들이 13%, 딸이 12%인 것으로 나타났다.²¹⁾

결국 노인에 대한 경제적·정서적·서비스 부양은 일차적으로 가족, 특히 성인 자녀들이 맡게 되지만 이외에도 친척·친구나 이웃·사회단체 및 국가 등에 의한 다양한 지원이 요구가 필요하다.

부양의식 및 효 의식을 다룬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부양의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부양의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성별에 따라서 중고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양의식 및 효 의식을 연구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양의식이 높았고²²⁾, 효 의식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었으며 효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²³⁾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장남의 책임으로만 여기지 않고 자식들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었고²⁴⁾, 부양방법에 있어서도 동거를 희망하는

19) 최승원·정혜정·서병숙(1997),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제15호, p.85.

20) 최승원·정혜정·서병숙(1997), 상계논문, p.87.

21) 성규탁(1995), “한국인의 효행의지와 연령층들간의 차이”, 한국노년학 15(1), pp.1~14.

22) 강숙경(1992), 전계논문, pp.38~39. 최정혜(1999),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9), pp.95~96.

23) 최승원·정혜정·서병숙 (1997), 전계논문, pp.91~92.

24) 이영우(2000), “청소년의 가족에 관한 의식연구 -인천시의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p.79. 이희자·김영미(1996), “청소년의 부모부양의식과 중년기 부모의 노후 준비도”, 대한가정학회지34(2). p.127.

경우가 높았다.

무조건적인 “효”의 개념이 아닌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효”의 실천은 단순히 노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전체를 위해 권장되어야 할 모습이다.²⁵⁾

3) 성 역할관

성역할이란 한 개인이 그가 속한 문화권내에서 여자 또는 남자로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여러 자질 혹은 성유형화 과정을 통해서 성별에 따라 습득하게 되는 성격 특성, 태도, 선호 경향, 행동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개념을 말한다.²⁶⁾

과거에 남성은 가정의 경제와 안위를 짊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있었고 여성은 가사를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우선적이었으나 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남녀 평등사상과 더불어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져 감에 따라,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은 새로운 평등주의적 사고방식과 마찰을 이루게 되었다.²⁷⁾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겠다는 견해가 뚜렷했었는데²⁸⁾, 김영희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느끼는 ‘일’이란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닌 자아실현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²⁹⁾

한편,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수행에 관한 연구³⁰⁾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성이 취업한 경우에 남성의 가사 및 자녀양육 참여도는 높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자녀양육과 가사역할에서 주된 역할을 맡고 있었다.

아울러, 여러 연구에서도 나타났지만 남학생인 경우 여학생보다 성역할 의식에서 전통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남녀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5) 박재간(1989), “전통적 효 사상과 현대적 의의 : 전통윤리의 현대적 조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116.

26) 옥선화·정민자·고선주(2000), 「결혼과 가족」, 도서출판 하우, p.115.

27) 조소연(2001), “부모와 미혼 성인자녀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p.15.

28) 한남제(1985), “가족 가치관의 변화”, 서울대 사회과학 과정연구, pp.137~170.

29) 김영희(1998), “결혼과 가족가치관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충북대학생생활연구 23, p.21~45.

30) 이미숙(1997),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요인 연구 : 가족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카톨릭대 생활과학연구논집 13, pp.87~105.

김연근(1998)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즉, 가정 내의 성역할관은 가부장적인 가치관의 잔존으로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전통적인 역할 개념이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자녀관

현대사회에서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가 강조되면서, 자녀의 가치나 자녀양육의 원리도 변화하였다. 자녀와의 관계도 가계계승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애정적 유대에 의한 관계로 변화하였다.

전통사회에서는 자녀를 통해 가명을 잇고, 가업을 잇고 혈통을 잇는다는 가치를 지닌다. 또한 자녀는 노후를 위한 투자였다. 가족중심 원리가 ‘효’인 만큼 성장한 자녀가 노년에 병약해진 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가족 규범이었다.³¹⁾

최근에는 가계존속의 의미가 없어지면서 DINK족처럼 자녀를 낳고 기르지 않는 대신 자신의 노후를 보장해 놓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KBS 여론조사(2000)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아들을 두어야 한다는 가치관에 그렇다는 응답이 43%(정말 그렇다 12% + 어느 정도 그렇다 3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7%(별로 그렇지 않다 41% + 절대 아니다 1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약간 우세하지만 아직까지도 아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응답이 43%나 되는 것은 남아선호사상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그로 인한 성비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해 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다.³²⁾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들, 딸 상관없이 자식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나 대체로 남학생의 경우가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³³⁾

이상과 같이 현대가정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상당히 변화해서 부

31) 문숙재·최혜경·정순희(2001), 「현대사회와 가정」, pp.88~91

32) KBS·한국가족학회(2000), “한국의 가족문화”, 여론조사.

33) 양명숙(1996), “예비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p.179.

모자녀 관계는 상당히 민주적이 되었으나 남아를 통한 가계계승이라는 부계가족 제도의 전통적 가치관과 남아선호사상은 관념적으로는 변화가 없으면서, 교육, 양육 등에서는 아들·딸 간의 구분이 없어지는 경향이라고 하겠다.³⁴⁾

5) 결혼관

결혼관이란 결혼 및 배우자 선택에 대해 개인이 지향하는 규범 및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사회에서의 결혼은 남녀의 개인적 행복보다는 가계의 영속적 계승을 중시하였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수립되어 결혼의 목적이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결혼은 그 사회적 의미보다는 개인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즉, 가족부양이라는 결혼생활의 의무보다는 결혼을 통한 행복추구라는 권리가 더 크게 인식되게 되었다. 또한, 애정적 유대에 근거한 결혼관이 점차 강조되면서,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는 현실에서의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나 이유를 상실하게 한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달라지면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로 의미를 부여하여 이혼에 대한 가치관도 변해가고 있다.

결혼에 대한 필요성에 관한 연구³⁵⁾는, 남자 66.2%, 여자 37.9%가 ‘결혼이 꼭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여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연근(1998)의 연구에서도 결혼에 대해서는 다수(61.5%)가 결혼을 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 남학생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이혼문제에 있어서는 대체로 개방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며 여학생이 더 개방적이었다.

이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에 있어서 남학생이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고 가정형편이 나은 청소년들이 이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핵가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이혼 반대율이 높았다.³⁶⁾

34) 조소연(2001), 상계논문, p.18.

35) 성한기(1997), “연애와 결혼에 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행동”, 효성카톨릭대학교 연구논집 55, pp.225~259

36) 이영우(2000), 상계논문, p.79.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점차 근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가부장적 고정관념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식을 파악하여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가족 만들기 및 가치관 교육과 청소년 상담 활동 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의 건강성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의 건강성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의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의식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5>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1·2·3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남학생 630부, 여학생 525부, 총 1155부로서 이 중에서 1084부가 회수되었고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96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집대상 학교로는 제주도 관내 중학교인 남학교, 여학교, 남·녀 공학 각각 2개교씩을 임의로 선정한 후 2004년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측정도구 구성 및 그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남·녀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3. 조사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및 가족의 건강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성 척도와 가족의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의 신뢰도는 <표Ⅲ-1>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Ⅲ-1> 척도의 신뢰도

척도	신뢰도계수 Cronbach α
가족의 건강성	0.95
가족의식	0.81

독립변수로서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을 구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변인으로는 성별, 학년, 출생순위, 부모 교육수준, 부모 연령, 부모 직업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영역과 내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의 건강성 척도

가족의 건강성은 어은주, 유영주³⁷⁾가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한국인의 가치관에 맞게 제작·개발한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37) 어은주·유영주(1995), 전계논문, pp.145~156.

이 측정도구의 하위영역은 한국인이 제시한 건강한 가족의 특성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종합하여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그리고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 등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에서 유사한 문항은 통합하고, 연구 대상자가 중학생임을 감안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문장을 부분 수정한 후 총 2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원간의 유대(9문항)는 가족원간의 친밀감, 애정, 함께 시간 보내기, 가정의 화목, 관심, 지지, 사생활 인정 등의 정서적인 측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족원간의 의사소통(7문항)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정도, 개방성, 명확성, 표현의 자유, 의사소통 유형, 의사결정시의 발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능력(6문항)은 문제나 위기 발생시 가족원이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5문항)는 가족만의 가치관이나 규범이 있는지, 가족의 가치관이나 규범에 가족원이 모두 동의하는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의 5점 리커트 형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4가지 하위요인을 총합하여 사용한다. 합쳤을 때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성도 높음을 의미한다.

2) 가족의식

이 연구에서 가족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 및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가족’의 의미, 부모 만족도, 가정생활의 기대사항, 부모 역할관, 부양 및 효의식, 성 역할관, 자녀관, 결혼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가족의식 질문지를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32문항으로, ‘가족’의 의미, 부모 만족도, 가정생활의 기대사항 및 부모역할관의 문항은 5지 선택형으로 작성하였고, 부양 및 효의식, 성 역할관, 자녀관, 결혼관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성 역할관과 자녀관, 결혼관의 영역에서는 문항의 성격에 따라 근대적인 경향

의 문항에 반대점수를 주어 평가하였으며, 역 채점 문항으로는 성 역할관에 속한 3문항, 자녀관에 속한 1문항, 결혼관에 속한 1문항이다.

<표Ⅲ-2> 조사도구의 영역과 내용

	영역	문항 수	내용
가족의 건강성	가족원간의 유대	9	친밀감, 애정, 사생활 인정, 함께 시간보내기 가족의 화목, 관심, 지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7	의사소통의 정도, 개방성, 명확성, 표현의 자유, 의사소통 유형, 의사결정시의 발언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5	가족의 가치관, 규범, 규칙에 가족원이 동의하는지, 가족만의 규범, 가치관이 있는지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6	문제와 위기 발생시 가족원이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
가족의 식	가족의 의미	1	가족의 개념
	부모 만족도	1	부모에 대한 만족감
	가정생활의 기대사항	1	현재의 우리 가정에 바라는 점
	부모 역할관	4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바람직한 부모상, 미래의 부모로서의 역할
	부양 및 효 의식	10	부양의식, 부양책임자, 부양방법, 노후 자녀에 대한 의존도, 효의 필요성, 효도의 의미
	성 역할관	7	남녀평등의식, 자녀양육 및 가사일의 역할 분담 가정 내 의사결정권자, 성 고정관념, 여성의 취 업의식
	자녀관	5	자녀의 필요성, 남아선호사상, 자녀의 가치
	결혼관	3	결혼의 필요성, 이혼에 대한 의식, 부부관계

4. 자료 분석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은 SAS Program(Ver 8.1)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식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유의도 검증은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일원변량분석 결과의 집단간 차이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가족의식과 가족의 건강성과의 관계는 단순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본 조사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에 의해서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살펴보면 <표IV-1>과 같다. 조사 대상은 제주도 관내 중학교 남·여 학생 960명을 대상으로 각 학년별로 조사하였다.

출생순위는 장남·장녀의 경우가 49.17%로 가장 많았고, 둘째 24.17%, 막내 18.54%, 독자·독녀 5.31%, 셋째이하 2.81% 순으로 형제자매가 둘 또는 세 명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으로는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42.9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고등학교 졸업 40.79%, 대학원 이상 10.80%, 중학교 졸업 4.03%, 초등학교 졸업 1.42%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58.78%, 대학교 졸업 30.61%, 중학교 졸업 5.30%, 대학원 이상 3.65%, 초등학교 졸업 1.66%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의 경우 40대가 82.67%, 50대 이상 12.71%, 30대는 4.52% 순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도 40대가 가장 많은 82.71%이며, 30대가 12.83%, 50대 이상 4.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 30.10%, 전문기술관리직 24.06%, 판매/서비스직 22.81% 순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주부인 경우가 29.9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 25.83%, 전문기술 관리직 13.23%, 사무직 12.40% 의 분포를 보였다.

<표Ⅳ-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인	구분	빈 도(%)	변인	구분	빈도(%)
성 별	남	512(53.33)	출 생 순 위	장남·장녀	472(49.17)
	여	448(46.67)		둘째	232(24.17)
학 년	1	331(34.48)		셋째 이하	27(2.81)
	2	302(31.46)		막내	178(18.54)
	3	327(34.06)		독자·독녀	51(5.31)
부 교 육 수 준	초등졸 이하	13(1.42)		모 교 육 수 준	초등졸 이하
	중졸	37(4.03)	중졸		48(5.30)
	고졸	374(40.79)	고졸		532(58.78)
	대졸	394(42.97)	대졸		277(30.61)
	대학원 이상	99(10.80)	대학원 이상		33(3.65)
	결측	43	결측		55
부 연 령	30대	43(4.52)	모 연 령	30대	121(12.83)
	40대	787(82.67)		40대	780(82.71)
	50대 이상	122(12.71)		50대 이상	42(4.38)
	결측	8		결측	17
부 직 업	무직	16(1.67)	모 직 업	무직	287(29.90)
	노무직	33(3.44)		노무직	21(2.19)
	기능생산직	43(4.48)		기능생산직	21(2.19)
	판매/서비스직	219(22.81)		판매/ 서비스직	248(25.83)
	사무직	289(30.10)		사무직	119(12.40)
	전문기술관리직	231(24.06)		전문기술관리직	127(13.23)
	농·수·축산업	48(5.00)		농·수·축산업	23(2.40)
	기타	54(5.63)		기타	79(8.23)
계		960(100)	계		960(100)

2.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중학생이 지각하는 건강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요인별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가족의 건강성 전체 평균점수를 살펴보았다.

<표IV-2> 가족의 건강성 정도

하위 요인	평균	표준편차
가족원간의 유대	3.42	0.68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3.27	0.71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2.99	0.78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3.39	0.76
전체(가족의 건강성)	3.26	0.66

가족의 건강성 지각수준은 평균 3.26점으로 대체로 가정이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다.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다른 요인에 비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영역은 가족원간의 유대 영역(M=3.42)이며, 그 다음이 문제해결수행능력(M=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기의 가족 건강성에 관한 윤세은³⁸⁾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가족원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서로 간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원들끼리의 정기적인 가족모임이나 가족회의를 하는 경우가 적고, 가족만이 갖는 가족문화의 공유 및 가족규범을 함께 만드는 가족이 적음을 나타냈다. 급변하는 현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세대의 가족 가치관 공유가 어렵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가치관의 부재나 불일치로 인한 여러 가지의 가족문제나 개인문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38) 윤세은(2000), 전개논문, p.30.

있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3.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의 건강성

가족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의 건강성 차이는 <표 IV-3>에 제시하였다. 가족의 건강성 전체요인에서는 성별, 교육수준(부·모), 직업(부)변인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윤세은³⁹⁾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족의 건강성에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다.

교육수준 변인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의 집단이 고졸, 중졸, 초 등졸 이하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 또는 전문 관리직일 경우에 가족이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고, 무직일 경우에 건강성 지각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윤세은⁴⁰⁾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것으로,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유형에 따라 건강성 지각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직업과 지위에 따라 가족의 건강성이 한정되지 않음을 중학생들에게 깨닫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자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가족관계 교육이 요구된다.

다음은 가족의 건강성을 4가지 하위요인별로 나누었을 때, 사회 인구학적 변인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9) 윤세은(2000), 전계논문, pp.31~32.

40) 윤세은(2000), 전계논문, pp.34~39.

<표IV-3>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의 건강성

변인	구 분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계	
		M	D	M	D	M	D	M	D	M	D
성별	남	3.50		3.34		3.10		3.46		3.34	
	여	3.32		3.20		2.87		3.30		3.17	
	t 값	4.08***		2.93***		4.56***		3.20**		3.92***	
학년	1	3.47		3.35 a		3.02		3.42		3.32	
	2	3.39		3.25 ab		3.01		3.37		3.25	
	3	3.39		3.21 b		2.93		3.38		3.22	
	F 값	1.35		3.26*		1.41		0.34		1.64	
출생순위	장남·장녀	3.45		3.26		3.01		3.41		3.29	
	둘째	3.39		3.24		2.91		3.33		3.21	
	셋째 이하	3.32		3.26		2.91		3.28		3.17	
	막내	3.40		3.36		3.06		3.43		3.29	
	독자·독녀	3.33		3.32		2.94		3.36		3.24	
	F 값	0.75		0.83		1.21		0.72		0.64	
부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3.06 a		3.23 a		2.63 a		3.08 a		2.97 a	
	중졸	3.29 ab		3.11 ab		2.94 ab		3.29 ab		3.16 ab	
	고졸	3.35 ab		3.23 ab		2.91 ab		3.31 ab		3.20 ab	
	대졸	3.50 b		3.33 b		3.04 b		3.45 b		3.32 b	
	대학원 이상	3.55 b		3.40 b		3.22 b		3.60 b		3.44 b	
	F 값	4.65***		2.22		4.34***		4.19**		4.13***	
모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2.77 a		2.85 a		2.32 a		2.68 a		2.62 a	
	중졸	3.21 b		2.98 ab		2.70 b		3.21 b		3.02 b	
	고졸	3.38 b		3.23 bc		2.93 bc		3.35 bc		3.22 bc	
	대졸	3.57 b		3.43 c		3.19 c		3.53 bc		3.42 c	
	대학원 이상	3.59 b		3.53 c		3.19 c		3.60 c		3.52 c	
	F 값	9.04***		8.07***		10.42***		7.22***		10.38***	
부연령	30대	3.24		3.18		2.30		3.22		3.16	
	40대	3.44		3.28		2.98		3.40		3.27	
	50대 이상	3.35		3.29		2.98		3.37		3.26	
	F 값	2.21		0.43		0.46		1.12		1.90	
모연령	30대	3.35 a		3.19		2.94		3.27		3.19	
	40대	3.44 a		3.29		2.99		3.41		3.28	
	50대 이상	3.20 b		3.26		2.93		3.40		3.21	
	F 값	3.20*		1.06		1.35		1.80		2.36	
부직업	무직	3.14 a		3.07		2.66 a		2.91		2.94 a	
	노무직	3.34 ab		3.24		2.84 ab		3.38		3.16 ab	
	기능생산직	3.36 ab		3.25		2.97 ab		3.40		3.29 b	
	판매/서비스직	3.32 ab		3.20		2.91 ab		3.33		3.19 ab	
	사무직	3.50 b		3.35		3.08 b		3.45		3.33 b	
	전문기술관리직	3.50 b		3.32		3.08 b		3.45		3.34 b	
	농·수·축산업	3.36 ab		3.18		2.87 ab		3.36		3.17 ab	
	기타	3.30 ab		3.21		2.84 ab		3.26		3.15 ab	
	F 값	2.46*		1.32		2.29*		1.93		2.27*	
모직업	무직	3.49		3.38		3.05 ab		3.50 a		3.35	
	노무직	3.52		3.15		2.73 a		3.38 ab		3.12	
	기능생산직	3.49		3.10		2.85 ab		3.21 ab		3.13	
	판매/서비스직	3.31		3.13		2.84 ab		3.26 ab		3.13	
	사무직	3.29		3.27		3.14 b		3.45 a		3.33	
	전문기술관리직	3.37		3.36		3.03 ab		3.48 a		3.34	
	농·수·축산업	3.40		3.25		3.17 b		3.09 b		3.12	
	기타	3.25		3.31		2.30 ab		3.35 ab		3.24	
	F 값	2.52		2.98		2.88**		3.04**		3.19	

*: p<.05, **: p<.01, ***: p<.001

1)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유대에 영향력 있는 변인은 성별, 교육수준(부·모), 연령(모), 직업(부)변인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원간의 유대감이 크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졸이상의 집단이 고졸, 중졸, 초등졸 이하의 집단보다 건강성 지각수준이 높았다. 모의 교육수준별로는, 집단간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중졸 이상의 집단이 초등졸 이하의 집단보다 지각수준이 높았다.

연령(모)의 경우는 50대이상 보다 30대, 40대의 어머니인 경우가 자녀들과의 유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면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 또는 전문 관리직인 경우가 유대감 지각 수준이 높았다. 이는 부모의 직업지위가 가족의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에 영향력 있는 변인은 성별, 학년, 교육수준(모)변인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인 경우가 가족원간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고학년이 될수록 의사소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이 되면서 고교입시 및 학원수강으로 인한 늦은 귀가 시간 때문에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할 기회와 시간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과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버지가 무직인 경우보다 취업한 비율이 높고, 반대로 어머니는 전업주부인 경우도 많아서 가정의 경제적인 부양은 아버지가 주로 담당을 하게 됨에 따라, 가정에서 의사소통이 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에 영향력 있는 변인은 성별, 교육수준(부·모), 직업(부·모)변인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원들끼리의 가치체계 공유가 잘 이루어진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의 집단이 고졸, 중졸, 초등졸 이하의 집단보다 가치체계공유의 지각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의 직업 변인에서는 전문기술관리직과 사무직인 경우가 지각수준이 높았고, 모의 직업 변인에서는 사무직인 경우가 높고 노무직인 경우에는 가치공유 지각수준이 제일 낮음을 알 수 있다.

4)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에 영향력 있는 변인은 성별, 교육수준(부·모), 직업(모)변인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문제가 발생 했을 시 가족원들끼리의 수행능력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의 집단이 고졸, 중졸, 초등졸 이하의 집단보다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 지각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모의 직업에 따라서는 전업주부와 전문기술관리직, 사무직의 순으로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이 높다고 인지하고 있다.

4.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의식의 전반적인 경향

「가족의 의미, 가정생활의 기대사항, 부모 역할관」의 5지 선택형 문항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하였고, 「부모만족도, 부양 및 효 의식, 성 역할관, 자녀관, 결혼관」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가족의식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IV-4>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 의식관

하위 요인	평균	표준편차
부모에 대한 만족	4.03	0.89
부양 및 효의식	3.82	0.57
성역할관	2.58	0.63
자녀관	2.66	0.63
결혼관	2.88	0.64

부모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03점으로 학생들은 부모를 신뢰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양 및 효 의식을 살펴보면 평균 3.82점으로 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성 역할관에 있어서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관과 결혼관도 근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가족’의 의미, 가정생활의 기대사항 및 부모 역할관을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1) ‘가족’의 의미와 가정생활의 기대사항

과반수가 넘는 63.42%의 학생들이 가족을 화목하게 사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혈연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26.94%였다. 이는 양옥경⁴¹⁾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를 나눈 사람들이라는 개념보다 요즈음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등장하면서 학생들의 전통적인 가족의식도 많이 달라져 감을 알 수 있다.

부모님에게 기대하거나 가정에 바라는 사항 중 가장 많이 나온 응답으로는 자신을 좀 더 이해해주길 바라고 있고(30.84%), 큰 기대를 걸지 않았으면 하는 응답비율(26.53%)이 높았다.

41) 양옥경(2001), “가족개념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호, PP.182~183.

이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학습에 대한 기대와 자녀수가 많지 않은 만큼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 스스로도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성취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IV-5> '가족'의 의미와 가정생활의 기대사항

영역	항목	빈도	%
'가족'의 의미	화목하게 사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605	63.42
	혈연공동체(피를 나누는 사람들이다)	257	26.94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52	5.45
	경제적인 공동체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28	2.94
	같은 성(박씨, 김씨, 이씨 . . .)을 가진 사람들이다	12	1.26
가정생활의 기대사항	나를 좀더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293	30.84
	나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으면 한다	252	26.53
	부모님과 대화시간이 많았으면 한다	144	15.16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졌으면 한다	116	12.21
	형제자매간에 비교 및 차별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105	11.05
	기타	40	4.21

2) 부모 역할관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은 가족원들과 '같이 꾸려가는 가정을 만든다'라는 응답이 39.7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제적인 책임을 진다' 36.88%,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 15.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연근⁴²⁾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가정경제를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42) 김연근(1998), 전계논문, pp.37~38

사람은 아버지라는 것에 서로 일치하고 있다. 부부역할이 동등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직도 아버지의 역할을 ‘같이 꾸려가는 가정 만들기’ 외에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에 두고 있는 것은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와 우리 사회의 의식 구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관을 묻는 물음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같이 꾸려가는 가정을 만든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42.99%), 그 다음으로 ‘가정의 가사일을 담당한다’가 17.94%, ‘자녀와 함께 놀아주며 자녀교육을 담당한다’가 17.30%,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가 14.44%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지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 아버지는 주로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어머니의 경우 직업을 갖고 있어도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부모상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며 이해심이 많은 부모님’으로 다수의 학생이 민주적인 부모형을 이상적인 부모로 꼽고 있다.

미래에 부모가 된다면 ‘자녀를 위해서 꼭 해주고 싶은 일’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녀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겠다’라는 의견이 37.34%, ‘가족원간에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가 30.91%, ‘여행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16.03%, ‘다양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 하겠다’가 13.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시기에 하고 싶어하는 일은 많은데, 학습이나 부모자녀세대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V-6> 부모 역할관

영역	항 목	도 수	%
부 역 할 관	같이 꾸러가는 가정을 만든다	377	39.73
	경제적 책임을 진다	350	36.88
	가정의 문제를 해결 한다	151	15.91
	자녀와 함께 놀아주며 자녀교육을 담당 한다	49	5.16
	가정의 가사 일을 담당 한다	22	2.32
모 역 할 관	같이 꾸러가는 가정을 만든다	405	42.99
	가정의 가사 일을 담당 한다	169	17.94
	자녀와 함께 놀아주며 자녀교육을 담당 한다	163	17.30
	가정의 문제를 해결 한다	136	14.44
	경제적 책임을 진다	69	7.32
바 람 직 한 부 모 상	관심을 갖고 도와주며 이해심이 많은 부모님	748	78.57
	나의 요구를 모두 들어 주시는 부모님	95	9.98
	모든 면에 엄격하신 부모님	40	4.20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모님	35	3.68
	관심도 갖지 않고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부모님	20	2.10
	기타	14	1.47
미 래 의 부 모 로 서 의 역 할	자녀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겠다	354	37.34
	가족원간에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	293	30.91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게 하겠다	152	16.03
	다양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 하겠다	124	13.08
	기타	25	2.64

3) 부양 및 효 의식

<표IV-7> 부양 및 효 의식

문항	M	SD
부모를 모시는 일은 당연하다	4.26	0.83
부모부양의 책임은 아들, 딸 모두 동일하다	4.27	0.79
부모님의 생활형편에 상관없이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	3.95	0.89
시부모님(장인·장모님)을 모시고 살 의향이 있다	3.43	1.06
자주 찾아뵈어 말동무 및 잔심부름을 해드리며 보살피드린다	4.01	0.86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양하는 것이 좋다	3.80	0.95
나는 노후에 자녀에게 의지할 생각이다	2.68	1.09
웃어른이 서로 다른 의견을 고집하시더라도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3.52	0.97
자녀가 성공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3.94	1.04
‘효’는 가족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4.30	0.84

부양의식 및 효 의식은 평균 3.82점으로 부양의식과 효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영역으로는 부양의식, 부양책임자, 부양방법, 노후에 자녀에 대한 의존도 및 효의 필요성으로 구성되었다. 부모를 모시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M=4.26), 결혼 후 시부모님 및 장인·장모를 모실 의향이 있고(M=3.43), 부모 부양시의 책임은 아들, 딸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4.26). 이는 기존의 연구인 이은경⁴³⁾과 최정혜⁴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부양방법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도움 이외에도 자주 찾아뵈어 말동무 및 잔심부름을 해드리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M=3.92). 또한 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M=4.30), 자녀의 성공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43) 이은경(1999),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pp.45~65

44) 최정혜(1999),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의 세대별 비교 연구 : 노년, 중년,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9), pp.85~101.

반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노후는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다(M=2.68). 노후의존도가 점차 약화됨을 알 수 있다.

4) 성 역할관

<표IV-8> 성 역할관

문	항	M	SD
남성도 육아 및 가사 일을 담당해야 한다		4.18	0.87
남편의 소득이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하다면 부인은 집에 있는 편이 좋다		3.13	1.20
남녀간에는 기본적인 능력 차이가 없다		3.90	0.96
여성은 자신의 성공보다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3.47	1.20
가정 내 중요한 일은 남편이 결정해야 한다		2.59	1.21
직장에서 중요하고 책임 있는 일은 남성에게 맡겨야 한다		2.66	1.24
남성이 직업을 갖지 않고 가사 일을 돌볼 수 있다		3.64	1.06

전체적인 성역할관은 남녀평등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세부영역으로는 남녀평등의식, 자녀양육 및 가사일의 역할 분담, 가정 내 의사결정권자,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의 취업의식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남성도 가사일 및 자녀양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M=4.18), 가족문제 발생시 의사결정권자도 남녀모두가 결정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남성에게만 책임 있는 일을 맡겨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에 ‘그렇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었다(M=2.26).

반면, 남녀 평등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정의 경제적인 부양책임이 없다면 아내는 집에 있는 편이 좋다’라고 지각하고 있고(M=3.13), 여성 자신의 성공보다는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이기를 바라고 있다(M=3.47).

이는, 점차 남녀간의 역할분담에는 뚜렷한 구분이 약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남성은 가정의 부양 책임자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애정적·정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취업여성이 많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청소년기 시기까지의 취업여성을 위한 사회적인 제도정책을 마련하여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과 자녀양육 역할 사이에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를 보더라도 여성은 결혼이나 육아문제에 관계없이 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많았으며⁴⁵⁾, 여성들이 남성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⁴⁶⁾

5) 자녀관과 결혼관

<표IV-9> 자녀관과 결혼관

영역	문항	M	SD
자녀관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가 있어야 한다	3.49	1.13
	자녀는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중요하다	4.56	0.74
	아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68	1.13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3.19	1.14
	자녀는 노후를 의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2.60	1.11
결혼관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반드시 필요하다	3.29	1.16
	한번 결혼하면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83	1.14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4.48	0.77

자녀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는 반응을 보였고(M=3.49), 아들·딸 똑같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M=4.56),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M=2.68) 이는 전통적인 자녀관에서 많이 탈피하고 있음을 나

45) 김경신(199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가치관과 세대간 유사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pp.43~65.

46) 이영우(2000), 전개논문, p.78.

타내준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도 된다’라는 물음에는 중간점수를(M=3.19)를 보여 주었다. 자녀의 가치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전통사회의 부모에게 자녀는 투자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즉, 자녀를 통해 가명을 잇고, 가업을 잇고, 혈통을 잇는 것 외에 부모의 노후를 위한 투자였었다. 요즘 들어서는 자녀를 순수한 애정의 대상으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 역시 ‘자녀가 노후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을 보였다.(M=2.60)

선행연구를 보더라도 자녀는 아들·딸 상관없이 있어야 하나 2명이면 적합하다는 결과를 보였고,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식도 낮았었다.⁴⁷⁾ 또한 무자녀 가족에도 많은 응답을 보였었다.⁴⁸⁾

결혼관을 살펴보면 결혼의 필요성은 평균 3.29점으로 필요하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한번 결혼 할 경우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M=3.83)라는 반응이 높았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부부가 수직적인, 종속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평등적 관계라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M=4.48). 가부장제 가족제도 아래에서 가정생활의 모든 권위와 결정권이 가장에게 집중되었던 예전에 비해 요즘에는 부부공동결정 유형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결혼관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이혼에 대한 의식이 허용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7) 김연근(1998), 전계논문, pp.47~48.

48) 김경신(1998), 전계논문, pp.43~65.

5.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의식

1) 부모에 대한 만족도

부모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 교육수준(부·모), 직업(모) 변인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학생이 부모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상의 집단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모의 직업은 전업주부일 경우 만족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0>참조)

2) 부양 및 효 의식

부양 및 효 의식은 성별, 학년, 연령(모)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학생들이 부양 및 효의식이 높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부양의식이 약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모의 연령이 30대와 40대인 경우, 50대 이상의 집단보다 부양의식이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대체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전통적인 부양의식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⁴⁹⁾

이는 아들 중심의 한국 가족문화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IV-11>참조)

49) 이은경(1999), 전계논문, p.59.

조소연(2001), 전계논문, p.55.

최정혜(1999), 전계논문, pp.92~96.

<표IV-10>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부모에 대한 만족도

변 인	구 분	N	M	SD	F(t)	DMR
성별	남	507	4.11	0.86	3.08**	
	여	447	3.94	0.91		
학년	1	330	4.07	0.91	1.01	
	2	301	4.04	0.90		
	3	323	3.98	0.86		
출생순위	장남·장녀	469	3.99	0.91	1.24	
	둘째	231	4.09	0.86		
	셋째 이하	27	4.00	0.88		
	막내	177	4.10	0.92		
	독자·독녀	50	3.86	0.76		
부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13	3.54	1.39	2.41*	a
	중졸	36	3.89	0.92		ab
	고졸	373	4.00	0.84		b
	대졸	393	4.12	0.86		b
	대학원 이상	96	3.99	1.08		b
모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15	3.47	1.41	3.53**	a
	중졸	47	3.85	0.81		ab
	고졸	532	4.04	0.84		b
	대졸	273	4.14	0.90		b
	대학원 이상	32	3.81	1.18		ab
부 연령	30대	42	4.00	0.99	1.97	
	40대	784	4.05	0.86		
	50대 이상	120	3.88	0.99		
모 연령	30대	121	3.97	1.02	2.75	
	40대	774	4.06	0.85		
	50대 이상	42	3.76	1.05		
부 직업	무직	15	3.67	1.05	1.05	
	노무직	32	3.88	0.94		
	기능생산직	43	3.91	0.84		
	판매/서비스직	218	4.01	0.83		
	사무직	288	4.07	0.89		
	전문기술관리직	229	4.03	0.94		
	농·수·축산업	48	4.17	0.75		
	기타	54	3.89	1.04		
모 직업	무직	284	4.14	0.91	2.20*	a
	노무직	21	4.10	0.70		a
	기능생산직	21	3.62	1.02		b
	판매/서비스직	247	3.90	0.85		ab
	사무직	118	4.08	0.87		a
	전문기술관리직	126	4.02	0.92		ab
	농·수·축산업	23	4.17	0.72		a
	기타	79	4.01	0.94		ab

*: $p < .05$, **: $p < .01$

<표IV-11>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양 및 효 의식

변 인	구 분	N	M	SD	F(t)	DMR
성별	남	503	3.91	0.58	5.14***	
	여	436	3.72	0.54		
학년	1	323	3.90	0.61	6.29**	a
	2	295	3.83	0.52		a
	3	321	3.74	0.56		b
출생순위	장남·장녀	461	3.80	0.58	1.30	
	둘째	227	3.87	0.54		
	셋째 이하	26	3.70	0.42		
	막내	174	3.88	0.58		
	독자·독녀	51	3.79	0.62		
부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13	3.77	1.00	0.34	
	중졸	36	3.79	0.37		
	고졸	365	3.82	0.50		
	대졸	387	3.84	0.58		
	대학원 이상	95	3.87	0.71		
모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15	3.82	0.92	1.03	
	중졸	46	3.79	0.36		
	고졸	521	3.82	0.55		
	대졸	269	3.89	0.56		
	대학원 이상	33	3.72	0.84		
부 연령	30대	41	3.68	0.62	1.98	
	40대	771	3.84	0.55		
	50대 이상	119	3.77	0.64		
모 연령	30대	117	3.77	0.59	3.06*	a
	40대	764	3.84	0.56		a
	50대 이상	42	3.65	0.68		b
부 직업	무직	16	3.73	0.86	1.41	
	노무직	32	3.84	0.52		
	기능생산직	42	3.60	0.48		
	판매/서비스직	214	3.84	0.53		
	사무직	281	3.83	0.58		
	전문기술관리직	228	3.86	0.58		
	농·수·축산업	46	3.81	0.58		
	기타	53	3.72	0.64		
모 직업	무직	277	3.85	0.58	0.97	
	노무직	21	3.90	0.50		
	기능생산직	21	3.70	0.63		
	판매/서비스직	241	3.76	0.54		
	사무직	117	3.86	0.54		
	전문기술관리직	127	3.86	0.61		
	농·수·축산업	23	3.89	0.47		
	기타	77	3.87	0.60		

*: p<.05, **: p<.01, ***: p<.001

3) 성 역할관

성역할관은 성별과 학년 변인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가 남녀 평등의식이 높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지 않은 반면, 남학생들은 남녀 평등의식을 공감하면서도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경신⁵⁰⁾과 양명숙⁵¹⁾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연구결과로, 여학생들은 취업에 있어서도 자아실현으로서의 취업을 희망하고, 맞벌이일 경우 부부가 가사노동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는 남녀의 역할에 있어 양성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사회는 맞벌이 여성들의 경우 가족 내 역할과 가정 밖 역할로 인해 부담감이 큰 실정이다.

성역할관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났다.(〈표IV-12〉참조)

4) 자녀관



자녀관은 성별 변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자녀의 필요성을 덜 인식하고 있으며, 남아선호사상도 남학생에 비해 진보적이다. 그러나 ‘아들·딸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남·녀 학생 모두에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⁵²⁾와도 일치하는 연구결과로, 가족중심원리가 ‘효’인 만큼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가족규범이었던, 자녀를 투자재로 보는 과거와는 달리 노후를 위해서 자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DINK(double income no kid)족처럼 자녀를 낳고 기르지 않는 대신 금융자산을 축적해서 자신의 노후를 보장해 놓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자녀의 가치관이 변해가고 있다. (〈표IV-13〉참조)

50) 김경신(1998), 전계논문, p.155.

51) 양명숙(1996), 전계논문, pp.175~176.

52) 양명숙(1996), 전계논문, pp.174~175.

조소연(2001), 전계논문, p.54.

<표Ⅳ-12>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 역할관

변 인	구 분	N	M	SD	F(t)	DMR
성별	남	496	2.81	0.53	12.55***	
	여	439	2.33	0.64		
학년	1	325	2.72	0.52	13.82***	a
	2	292	2.57	0.62		b
	3	318	2.46	0.71		c
출생순위	장남·장녀	464	2.56	0.66	0.89	
	둘째	226	2.63	0.59		
	셋째 이하	26	2.43	0.51		
	막내	171	2.60	0.61		
	독자·독녀	48	2.58	0.65		
부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13	2.52	0.53	0.37	
	중졸	36	2.65	0.65		
	고졸	361	2.60	0.59		
	대졸	385	2.56	0.65		
	대학원 이상	97	2.57	0.70		
모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15	2.57	0.65	0.25	
	중졸	47	2.64	0.56		
	고졸	520	2.58	0.62		
	대졸	266	2.55	0.65		
	대학원 이상	33	2.61	0.72		
부 연령	30대	43	2.75	0.55	1.65	
	40대	766	2.57	0.64		
	50대 이상	118	2.58	0.60		
모 연령	30대	121	2.53	0.64	2.01	
	40대	755	2.58	0.64		
	50대 이상	42	2.75	0.47		
부 직업	무직	16	2.57	0.60	0.33	
	노무직	33	2.50	0.61		
	기능생산직	42	2.66	0.60		
	판매/서비스직	208	2.55	0.62		
	사무직	286	2.58	0.66		
	전문기술관리직	224	2.61	0.62		
	농·수·축산업	47	2.54	0.58		
	기타	52	2.60	0.64		
모 직업	무직	280	2.52	0.62	2.31	
	노무직	21	2.46	0.61		
	기능생산직	21	2.71	0.63		
	판매/서비스직	238	2.54	0.65		
	사무직	118	2.73	0.59		
	전문기술관리직	126	2.55	0.68		
	농·수·축산업	23	2.65	0.54		
	기타	76	2.73	0.58		

***: $p < .001$

<표IV-13>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녀관

변 인	구 분	N	M	SD	F(t)
성별	남	487	2.87	0.60	11.2***
	여	438	2.44	0.59	
학년	1	318	2.72	0.66	1.92
	2	290	2.63	0.61	
	3	317	2.64	0.63	
출생순위	장남·장녀	455	2.69	0.64	1.32
	둘째	222	2.69	0.62	
	셋째 이하	26	2.53	0.58	
	막내	173	2.63	0.62	
	독자·독녀	49	2.53	0.69	
부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13	2.69	0.58	0.11
	중졸	34	2.73	0.60	
	고졸	356	2.66	0.60	
	대졸	382	2.67	0.65	
	대학원 이상	97	2.66	0.70	
모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15	2.68	0.53	0.12
	중졸	47	2.63	0.59	
	고졸	510	2.67	0.63	
	대졸	268	2.65	0.64	
	대학원 이상	31	2.70	0.69	
부 연령	30대	42	2.77	0.64	1.54
	40대	759	2.67	0.63	
	50대 이상	116	2.59	0.65	
모 연령	30대	117	2.57	0.66	1.47
	40대	750	2.68	0.64	
	50대 이상	42	2.66	0.52	
부 직업	무직	15	2.45	0.77	0.39
	노무직	33	2.66	0.56	
	기능생산직	42	2.72	0.52	
	판매/서비스직	210	2.68	0.60	
	사무직	277	2.67	0.66	
	전문기술관리직	223	2.67	0.65	
	농·수·축산업	45	2.74	0.61	
	기타	53	2.65	0.65	
모 직업	무직	275	2.62	0.60	1.44
	노무직	21	2.56	0.64	
	기능생산직	21	2.79	0.59	
	판매/서비스직	240	2.63	0.61	
	사무직	112	2.81	0.69	
	전문기술관리직	123	2.68	0.71	
	농·수·축산업	22	2.77	0.62	
	기타	77	2.71	0.61	

***: $p < .001$

5) 결혼관

사회 인구학적 변인별로 결혼관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서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보다 결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혼에 대한 인식도 남학생보다는 진보적이다. 남녀학생 둘 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평적인 관계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⁵³⁾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성취업의 증가로 인한 가정과 직장생활에서의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기가 힘든,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IV-14>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관

변인	구분	N	M	SD	F(t)	변인	구분	N	M	SD	F(t)
성별	남	492	3.10	0.54	12.02***	출생순위	장남·장녀	456	2.90	0.61	0.75
	여	438	2.63	0.65			둘째	224	2.90	0.66	
학년	1	320	2.91	0.65	2.80	출생순위	셋째 이하	27	2.74	0.82	0.75
	2	292	2.92	0.61			막내	173	2.87	0.66	
	3	318	2.81	0.65			독자·독녀	50	2.79	0.57	
부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13	2.74	0.55	0.84	모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15	2.93	0.52	0.49
	중졸	34	3.06	0.55			중졸	47	2.87	0.67	
	고졸	359	2.87	0.64			고졸	511	2.87	0.64	
	대졸	384	2.87	0.65			대졸	272	2.91	0.63	
	대학원 이상	97	2.88	0.66			대학원 이상	31	2.76	0.67	
부연령	30대	42	3.03	0.54	1.26	모연령	30대	118	2.89	0.59	0.29
	40대	763	2.88	0.65			40대	754	2.88	0.65	
	50대 이상	117	2.86	0.61			50대 이상	42	2.95	0.52	
부직업	무직	16	2.56	0.96	1.38	모직업	무직	277	2.93	0.63	1.34
	노무직	33	2.94	0.46			노무직	21	2.84	0.61	
	기능생산직	42	2.76	0.62			기능생산직	21	2.89	0.66	
	판매/서비스직	211	2.89	0.63			판매/서비스직	242	2.82	0.66	
	사무직	277	2.89	0.66			사무직	113	3.00	0.59	
	전문기술관리직	224	2.93	0.63			전문기술관리직	122	2.83	0.67	
	농·수·축산업	46	2.88	0.61			농·수·축산업	22	2.91	0.68	
	기타	54	2.74	0.70			기타	78	2.86	0.60	

***: $p < .001$

53) 조미숙(199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관계 변인이 청소년의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pp.37~38.

6.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식과의 관계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IV-15>와 같다.

<표 IV-15>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식의 상관관계

변인	가족의 건강성	가족원 간의 유대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의식	부모 만족도	부양 및 효의식	성역할관	자녀관	결혼관
가족의 건강성	1										
가족원간의 유대	0.89***	1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0.92***	0.80***	1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0.88***	0.67***	0.73***	1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0.90***	0.75***	0.77***	0.71***	1						
가족의식	0.23***	0.24***	0.22***	0.13***	0.23***	1					
부모에 대한 만족	0.53***	0.51***	0.47***	0.40***	0.49***	0.54***	1				
부양 및 효의식	0.47***	0.43***	0.41***	0.39***	0.44***	0.47***	0.38***	1			
성역할관	0.08*	0.04	0.07*	0.13***	0.05	0.08*	0.02	0.10**	1		
자녀관	0.25***	0.22***	0.20***	0.26***	0.21***	0.25***	0.09**	0.25***	0.51***	1	
결혼관	0.18***	0.18***	0.15***	0.20***	0.16***	0.18***	0.13***	0.23***	0.39***	0.57***	1

*: $p < .05$, **: $p < .01$, ***: $p < .001$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족원간의 유대가 높을수

록,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가치체계 공유가 높을수록,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크고, 부양 및 효의식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에 대한 만족감이 있으면 부모자녀 간에 유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고, 대화 및 가치관 공유와 가족원들의 문제해결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므로 가족이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가족이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부모 부양과 일상생활에서의 ‘효’도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성 역할관 및 자녀관과 결혼관은 다른 가족의식 변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가족의 건강성을 이루는 모든 하위요인들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으며 결혼 후 자녀도 있어야 하나, 반드시 아들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아들·딸 구별 없이 동등하게 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자녀의 개성을 존중하며, 자녀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많이 하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결혼관과 성 역할관에 있어서도 결혼은 필요하며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부부간에도 평등한 관계가 유지될 때 건강한 가족이 유지된다고 답하고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 및 가사분담에 있어서도 평등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남편과 아내는 언제나 동등하므로 상호 협조하고 격려하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라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란 전통적인 부모역할과 부모자녀관계 및 고정적인 성역할을 탈피한, 가족원끼리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가족이다. 전통적으로 권위적이고 엄격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가 이상적으로 여기기보다는 서로를 사랑하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화목한 가족이 바로 건강한 가족이라고 지각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사회변화와 더불어 여러 가족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가족의 모습은 건강한지, 가족의식은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제주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식을 살펴보고 이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의 건강성은 평균 3.26점으로서 대체로 가족이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건강성 하위요인 중에서도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가족원간의 유대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M=3.42) 그 다음이 가족문제 해결 수행능력(M=3.39),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M=3.27),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M=2.99)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 서로 간에 애정과 사랑으로 감싸주며, 어느 한 가족원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최선의 해결책으로 문제 해결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족원들끼리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힘들다는 것과 가족 공통의 가치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의 건강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과 부모의 교육수준, 부의 직업 변인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자신들의 가족에 대해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그 외 고졸 이하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기술관리직과 사무직일 경우 가족이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다.

셋째, 중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이란 혈연공동체이지만 화목하게 살아가

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느끼고 있고, 부모에 대한 만족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정에 바라는 점으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가 자신을 좀 더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있고, 부모님과 대화의 기회를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그 외에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기대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많았다.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크고, 부모의 기대수준대로 자녀가 해 주기를 바라는 데서 오는 심리적인 갈등이 큼을 알 수 있다.

넷째,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역할로서는 ‘같이 꾸러가는 가정을 만든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아직도 가정의 경제적인 부양은 아버지가, 자녀양육 및 가사 일은 어머니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다섯째, 부양 및 효 의식을 살펴보면 ‘효’는 반드시 필요하며,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해야 하는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의식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나 남·녀 학생 모두 자신의 노후는 자녀에게 의지할 생각이 없음을 나타냈다.

여섯째, 성 역할관은 남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들이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면 여성은 가정에서의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큼을 알 수 있다. 고학년일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자녀관에 대해 살펴보면 예전의 전통적인 자녀관과는 달리 아들, 딸 둘 다 똑 같이 중요하며 남아선호사상도 뚜렷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도 낮았다. 또한, 여학생들과는 달리 남학생들은 결혼 후에 자녀를 갖겠다는 의식을 보여 주었고, 여학생들은 자녀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현실에서 자녀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다. 결혼관은 남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이 결혼의 필요성을 더 지각하고 있으며, 이혼에 대한 의식은 남녀 모두가 낮았다.

여덟째,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에 대한 만족은 가족원간의 유대가 높고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잘 될수록, 가족문제 발생시 문제 수행능력이 클수록 높았으며, 부양 및 효 의식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 역할관, 자녀관, 결혼관과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결혼 후에는 아들, 딸 구별 없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성역할에 있어서 평등의식을 나타냈다. 또한, 결혼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이혼에 대해서는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다.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기 자녀의 일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부모 자녀 간에 믿음이 있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며, 부부간에도 서로 인격을 존중해 주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라고 지각하고 있다.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가족이 중학생들이 바라는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다.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청소년기의 정서적인 발달 및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은 가장 일차적인 환경인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 안에서의 가족관계로 인한 영향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가족이 등장하고 있고, 가족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오늘날의 가족형태에 맞는 가족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수정된 가족주의 가치관을 자녀 세대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결과 가족의식관의 경우는 성별에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의 고수는 남녀간의 갈등을 야기하므로 고정화된 사고방식을 벗어난 상대방의 특성을 인정하고, 자신을 인정받는 유연한 사고방식의 성역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족의 정서적, 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실시함은 물론, 가족의 건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 사회복지 정책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원들 스스로도 가족만이 갖는 고유한 규칙이나 가족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족구성원 서로에게 격려나 칭찬 한마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제 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제주도 지역과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표집 하였으므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다양한 표집대상이 요구되며, 연구방법상 설문지에 의한 표집조사만이 아니라 각 가족의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는 질적 연구가 요구된다.

가족의 건강성을 파악함에 있어 중학생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부모와 자녀가 지각하는 건강성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가족원 상호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해 보고, 가족의 건강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김미숙 외12인(2002),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 김태길(1995),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문음사.
- 문숙재·최혜경·정순희(2001), 「현대사회와 가정」, 교문사.
- 박민자(1995), “가족의 의미”, 「가족과 한국사회」, 여성사회연구회 편, 경문사.
- 박재간(1989), 「전통적 효 사상과 그 현대적 의의 : 전통윤리의 현대적 조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옥선화(1996), 「한국가족문제 : 그 진단과 전망」, 한국가족학연구회, 도서출판 하우.
- 옥선화·정민자·고선주(2000), 「결혼과 가족」, 도서출판 하우.
- 유영주 외2인 공역(2000), 「가족관계학」, 교문사.
- 유영주·김경신·김순옥(2000), 「신가족 관계학」, 교문사.
- 유영주 외 6인(2000), 「현대결혼과 가족」, 신광출판사.
- 이정우·김명자·계선자(2001), 「현대결혼과 가족문화」,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최외선 외 9인 공저(2003), 「결혼과 가족」, 정림사.
- 한남제(1989), 「현대한국가족연구」, 일지사.
- 강숙경(1992), “가정의 심리적 과정 환경과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김미자(1999), “효의식과 효행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경기도 인문·실업계 고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성은(1994), “남고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김연근(1998), “중·고등학생의 가족 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박수현(2003), “대학생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서울시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신수진(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양순미(2001),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어은주(1996), “한국 도시 가족의 건강성 및 관계 요인 연구 - 자녀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엄윤상(1996),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변화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명우(2000), “청소년의 가족에 관한 의식연구 - 인천시의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미숙(1997),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관련요인 연구 : 가족주의가치를 중심으로”, 카톨릭대 생활과학 연구논집.
- 이수연(2000),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윤세은(2000),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 서울시 남녀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미숙(199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관계 변인이 청소년의 가족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소연(2001), “부모와 미혼 성인자녀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주영미(2002),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과 가족 적응성 및 가족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강호(2001), “농촌 초·중·고생의 노인부양의식 -경북 봉화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선희(1999), “한국의 가족 건강성 영역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하은아(2002), “가족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가족개념인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황인식(1988), “대학생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과 사회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 김경신(199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가치관과 세대간 유사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 김경신(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노년, 중년,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 김규원(1995),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 논집. 7.
- 김영희(1998), “결혼과 가족가치관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충북대학생생활연구 23.
- 김일명(1989),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 성한기(1997), “연애와 결혼에 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행동”, 효성카톨릭대학교 연구논집 55.
- 양명숙(1996), “예비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 양순미(2001), “한국 농촌의 건강가족 집단 분류 및 특성에 관한 연구-자녀교육기의 농촌가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 양옥경(2000), “한국가족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호.
- 양옥경(2001), “가족개념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호.
- 어은주·유영주(1997),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연구 : 자녀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 유계숙(2001),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5).
- 유영주(1999), “건강가정과 건강가족의 개념설정에 대한 논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 유영주·어은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

- 국가정관리학회지 13(1).
- 이미숙(1995), “현대한국가족의 핵가족화 및 가치관 변화와 청소년 발달간의 관련성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 이은경(1998),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 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 이희자 · 김영미(1996), “청소년의 부모부양의식과 중년기 부모의 노후 준비도”, 대한가정학회지 34(2).
- 최승원 · 정혜정 · 서병숙(1997),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제15호.
- 최정혜(1999),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9).
- 한경순(1999), “남녀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7(9).
- 한남제(1985), “가족 가치관의 변화”, 서울대 사회과학 과정연구.
- 허봉렬(1997), “건강가족 실천운동의 방향과 과제, 건강가족상 정립을 위한 워크샵”, 한국건강가족 실천운동 본부.
- KBS 한국방송 · 한국가족학회(2000), “한국의 가족문화 (여론조사)”.
- Brigman, K. M. L., Schons, J. & Stinnett, N.(1986). Strengths of families in a society under stress : A study of strong families in Iraq. Family Perspective, 20.
- Belkin, G, S., & Nass, S.(1984), Psychology of adjustment: The fully functioning family. Boston:Allyn & Bacon.
- Marjorie, E. S. & Kristen, E. H.(2000). Adolescents Plans for Family Formation: Is Parental Socialization Importa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 Otto(1962). H. A. What is a strong family ?.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Abstract>

**The research of family health and family values perceived
by teenagers**

Song, Kyoung Hee

**Home Econom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 Kim, Hye-sook

This dissertation is to giv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teaching right family values and guideline for keeping a family healthy as well as for convincing teenagers of the importance of a healthy family and the right family values.

Thus, we will examine the family health coming to a crisis in rapid changes of society, the changes of teenagers' family value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We surveyed randomly 960 middle school students in Jeju. For data analysis, we take the t-test, one way ANOVA(Analysis Of Variance), and Duncan Varification after getting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with SAS program.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4.

For reliability we calculate the internal consistency with respect to the Cronbach coefficients.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score of the family health perceived by teenagers is 3.26 which means that their families are fairly healthy. Among 4 sub-factors of family health, the relationship of family has the highest score. However, the degree of sharing family values is the lowest.

After examining the awareness of family health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al change factor, the male teenagers perceive their family health better than the female teenagers. In addition, the better academic background parents have, the better teenagers perceive the family health. The father's job has a meaningful effect on this awareness, which is specially the lowest in case of an unemployed father

Second, in view of family values,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parents is high. Male teenagers rather than female teenagers tend to show higher satisfaction with their parents ; This is as such in case of teenagers whose parents have better academic background. Most of teenagers consider the father's role as economical support and the mother's role as housework and child care.

The average score of the teenagers' consciousness of family support and filial piety is highly marked at 3.82. This is as such in case of male teenagers and upper grades.

For the view of sex role, most teenagers have the equality of the sexes. Male teenagers tend to assume traditional sex role. Also in an outlook on marriage and offspring, male teenagers tend to be more traditional than female teenagers. Teenagers answered that children are necessary, but they don't prefer a 'boy' to a girl ; Marriage is necessary, but they are not still open-minded to divorce.

Third, considering the correlation between family health and family values,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parents and awareness of family support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relationship, communication, share of family values among family members and the ability of solving family problems. It tells us that the higher satisfaction with parents and the higher awareness of family support are, the healthier family they perceive. Furthermore, the family health has some connection with the view of sex role, offspring, and marriage. Teenagers consider understanding and respect among family members a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 healthy family in place of the traditional parent-roles.



5. 부모님의 연령

	30대	40대	50대	60대
부				
모				

6. 부모님의 직업

직업	부	모
1) 무직		
2) 노무직 : 행상, 노점, 노동자 등		
3) 기능생산직 : 숙련노동자, 기능직 종사자, 등		
4) 판매/서비스업 : 판매원, 소·도매상, 요식·숙박업 경영, 운수업		
5) 사무직 : 회사원, 은행원, 일반 공무원, 사회단체 직원, 등		
6) 전문기술관리직 : 법조인, 언론인, 의사, 교사, 교수, 건축사, 설계사, 자영업체경영자		
7) 농업, 수산업		
8) 기 타	()	()

II. 다음은 여러분의 가족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
시기 바랍니다.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 렇 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준다					
2.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원에게 더 친근감을 느낀다					
3.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4. 우리 가족은 가정에 충실하다					
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잘한다					
6. 우리 가족은 힘들어하는 가족원이 있을 때에 다 른 가족원도 그 이유를 알고 있다.					
7.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충분한 관심을 보이며 애 정 표현을 잘한다.					
8. 우리 가족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9. 우리 가족은 여가나 취미생활을 함께 즐긴다					
10. 우리 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11.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하다					
12. 우리 가족은 정기적으로 가족모임이나 가족회 의를 한다.					
13.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14. 우리 가족은 중요하게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모 든 식구들의 의견을 듣는다					

문 항 내 용	매우 그렇다	그 렇 다	보 통 이 다	그 렇 지 않 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15. 우리 가족은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16. 우리 가족은 서로 신뢰 한다					
17. 우리 가족은 온 가족이 함께 할 일을 결정하기가 아주 쉽다					
18. 우리 가족은 가족규범을 함께 만든다					
19. 우리 가족은 생활철학(가치관, 신념, 생각)이 서로 비슷하다.					
20. 우리 가족만이 갖는 가족문화가 있다					
21. 우리 가족은 가족원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22.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가족원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책이 되도록 노력 한다					
23. 우리가족은 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족원 모두가 책임을 진다					
24. 우리 가족간의 의견차이는 극복하기가 쉽다					
25.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족원끼리 협력하면서 해결 한다					
26. 우리 가족은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노력 한다					
27. 우리 가족은 위기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갈려고 노력 한다					

Ⅲ. 다음은 가족의식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족'이라면 가장 먼저 '어떤 사람들의 집단' 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화목하게 사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
- ② 혈연공동체(피를 나누는 사람들이다) ()
- ③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
- ④ 같은 성(박씨, 이씨, 김씨...)을 가진 사람들이다. ()
- ⑤ 경제적인 공동체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

2. 나는 부모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고 만족하고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렇다 ()
- ③ 보통이다 ()
- ④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3. 현재 우리 가정에 꼭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부모님과의 대화시간이 많았으면 한다 ()
- ② 나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으면 한다 ()
- ③ 형제자매간에 비교 및 차별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
- ④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졌으면 한다 ()
- ⑤ 나를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
- ⑥ 기타 ()

4.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 ① 경제적 책임을 진다 ()
- ② 자녀와 함께 놀아주며 자녀교육을 담당한다 ()
- ③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 ()
- ④ 가정의 가사 일을 담당한다 ()
- ⑤ 같이 꾸려가는 가정을 만든다 ()

5.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 ① 경제적 책임을 진다 ()
- ② 자녀와 함께 놀아주며 자녀교육을 담당한다 ()

- ③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 ()
- ④ 가정의 가사 일을 담당한다 ()
- ⑤ 같이 꾸려가는 가정을 만든다 ()

6. 내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부모님상은?

- ① 관심을 갖고 도와주며 이해심이 많은 부모님 ()
- ② 나의 요구를 모두 들어 주시는 부모님 ()
- ③ 모든 면에 엄격하신 부모님 ()
- ④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모님 ()
- ⑤ 관심도 갖지 않고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부모님 ()
- ⑥ 기타 ()

7. 내가 부모가 된다면 자녀를 위해 꼭 해주고 싶은 일은 ?

- ① 다양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 하겠다 ()
- ② 가족원간에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 ()
- ③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게 하겠다. ()
- ④ 자녀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
- ⑤ 기타 ()

가 족 의 식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당연하다					
9. 부모 부양의 책임은 아들, 딸 모두 동일하다					
10. 부모님의 생활 형편에 상관없이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					
11. 시부모님(장인·장모님)을 모시고 살 의향이 있다					
12. 자주 찾아보어 말동무 및 심부름을 해드리며 보살피드린다					

가 족 의 식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양하는 것이 좋다					
14. 나는 노후에 자녀에게 의지할 생각이다					
15. 웃어른이 서로 다른 의견을 고집하시더라도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16. 자녀가 성공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17. '효'는 가족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18. 남성도 육아 및 가사 일을 담당해야 한다					
19. 남편의 소득이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하다면 부인은 집에 있는 편이 좋다					
20. 남녀간에는 기본적인 능력 차이가 없다					
21. 여성은 자신의 성공보다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2. 가정 내 중요한 일은 남편이 결정해야 한다					
23. 직장에서 중요하고 책임 있는 일은 남성에게 맡겨야 한다					
24. 남성이 직업을 갖지 않고 가사 일을 돌볼 수 있다					
25.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가 있어야 한다					
26. 자녀는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중요하다					
27. 아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8.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 한다					
29. 자녀는 노후를 의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30.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반드시 필요하다					
31. 한번 결혼하면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2.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부록 2>

<부표 1> 가족의 건강성 세부문항

문항	N	M	SD
1.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준다.	960	3.69	0.89
2.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원에게 더 친근감을 느낀다.	957	3.89	0.94
3.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959	3.81	0.91
4. 우리 가족은 가정에 충실하다.	955	3.74	0.90
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잘한다.	960	3.32	1.02
6. 우리 가족은 힘들어하는 가족원이 있을 때에 다른 가족원도 그 이유를 알고 있다.	954	3.29	1.02
7.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충분한 관심을 보이며 애정표현을 잘한다.	952	3.36	1.01
8. 우리 가족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958	2.55	1.00
9. 우리 가족은 여가나 취미생활을 함께 즐긴다.	957	3.13	1.11
10. 우리 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960	3.39	1.05
11.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하다.	959	3.45	0.90
12. 우리 가족은 정기적으로 가족모임이나 가족회의를 한다.	959	2.39	1.10
13.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955	3.29	0.98
14. 우리 가족은 중요하게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모든 식구들의 의견을 듣는다.	955	3.35	1.01
15. 우리 가족은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956	3.43	0.91
16. 우리 가족은 서로 신뢰한다.	958	3.60	0.89
17. 우리 가족은 온 가족이 함께 할 일을 결정하기가 아주 쉽다.	957	3.27	0.99
18. 우리 가족은 가족규범을 함께 만든다.	956	2.73	1.06
19. 우리 가족은 생활철학(가치관, 신념, 생각)이 서로 비슷하다.	954	3.00	1.00
20. 우리 가족만이 갖는 가족문화가 있다.	959	2.87	1.07
21. 우리 가족은 가족원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950	3.08	1.05
22.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가족원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책이 되도록 노력한다.	955	3.45	0.94
23. 우리 가족은 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족원 모두가 책임을 진다.	957	3.34	0.97
24. 우리 가족간의 의견차이는 극복하기가 쉽다.	958	3.21	1.00
25.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족원끼리 협력하면서 해결한다.	958	3.41	0.99
26. 우리 가족은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959	3.36	0.96
27. 우리 가족은 위기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갈려고 노력한다.	960	3.58	0.93
전체	891	3.26	0.66